

대학에  
바란다

# 대학에 바란다\*

서정인 | 서울고등학교 수학교사



일부 특수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 모두 각 대학교에서 대학 자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면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자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형방법이나 전형요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대비하는 방법과 방향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게 하는 현행 고입제도 하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각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의 위상이나 후년의 대학입시준비 방법 및 교육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시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시모집 전형은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위주의 전통적인 선발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방향성이 정착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시 결과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어 그 준비과정에 있어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면에서 고등학교에서도 해마다 치러지는 입시결과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진학지도를 해 왔다.

이에 비하여 수시모집 전형은 다양한 전형 방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수험생의 내신성적을 반영하며, 거기에 덧붙여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바탕이 되는 서류전형, 그리고 실기고사와 면접고사 등의 성적을 일부 또는 전부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성적과 논술고사 또는 적성고사 그리고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학력조건이나 특별전형에 대한 지원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의 수시전형에는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졸업일 전후하여 그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정시모집과는 달리, 수험생이 졸업하기 전인 2학기 중에 자신의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진로와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모집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수시모집전형 가운데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취지는 대학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수험생을 입학사정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데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전형은 수시모집의 취지와 부합되는 점이 많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해마다 그 모집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증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시행 초기 보다는 선발기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전적인 면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정성적인 측면의 평가가 주안점이 되는 이 전형의 특성상 교과성적처럼 명확하게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은 곧바로 수험생이나 이를 지도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말끔히 해소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능성적의 등급산출이나 내신 교과성적의 평균, 표준편차 및 등급산출처럼 명확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한 해의 입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에 지원 가능한 기준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바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의 자기 소개서나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거나 면접을 통하여 ‘전공적합성’을 판단하

는 전형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수치화 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정량화, 계량화로 수치화 하는 것은 이 전형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불안감 해소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대학별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한 시행 방법과 입시결과를 가능한 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해소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속에는 실천 가능하고 평균적인 합격 사례를 들어 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이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완벽한 사례만 들어주는 것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의 도전을 망설이게 하거나 소모적인 준비를 하게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전형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입학사정관들의 협의체도 구성되어 공통적인 선발 방안이나 기준도 논의하고 마련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특성화를 외치고 있는 각 대학교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상황과 수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흥미와 열정, 노력으로 만들어진 전공탐색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대학마다 서로 다르기 마련이고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해소책으로는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생각을 알고 그것을 선발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고려하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러한 현실에 비해 전공학과를 결정할 때 실제로 수험생들의 학과에 대한 관심과 정보 및 학업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의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학생을 제외한 상당수 고등학생들은 단순히 가고 싶은 대학교의 선호학과에 합격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험생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은 불행하게도 별로 많지 않다고 한다. 물론, 전공학과를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알맞게 잘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느 학과에 합격하면 졸업후 취업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혹은 졸업하면 남들보다 고생을 덜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적성을 무시한 채로 특정 학과에 지원한다고 한다. 즉, 합격하기만하면 그 즉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전공학과의 공부를 해보고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느끼게 된다. 심한 경우 그토록 원했거나 남들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들어온 학과에 대한 적성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게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입학하자마자 바로 전공과 무관한 고시공부로 내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공학과 및 전공과목,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꼭 필요한 기초공부에 대

한 적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담은 홍보방안을 찾는 것이며 말 그대로 전공적합성을 가능한 정확하게 검증하여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해결가능하리라 본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고등학교에서 닦은 튼튼한 실력을 바탕으로 학자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혼자서도 책을 읽어서 그 속에 있는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깊이 있고 폭 넓은 지식을 수강할 수 있어야 하는 자질도 있어야겠다. 아울러 선진 학문을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서를 읽어서 그 속의 내용을 스스로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전공공부에 필요한 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더 심화된 전공 관련 공부도 효율적으로 마쳐서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입 수시전형 가운데 특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바로 이처럼 전공적합성이 뛰어난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비교과적인 측면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성적 면이 무시된다는 것은 아님에도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느 한 가지 분야에 독보적인 노력이나 활동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상을 많이 받거나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홈페이지나 기타 홍보기회를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수험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선발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하지만, 비교과면에서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는 상당수의 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강조하는 정성평가위주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성적은 우수하면서도 비교과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고등학생들도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한다. 물론 이 경우 나름대로 교과성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리한 전형에 지원하리라 생각한다. 하나 서류를 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봉사활동, 교내 수상실적, 동아리 활동 등)에서 변별할 수 없는 경우 효율적인 변별력 확보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추천서나 제출서류에 화려하게 기재된 내용만이 전공적합성을 보여 주는 유일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열심히 학교공부를 하면서 한편 전공학과와 관련된 활동이나 노력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수 있었는지 서류전형보다는 면접을 통하여 몸에 배인 전공적합성을 찾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대입 전형 요소중 수시모집에서 30여개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는 비교적 변별력이 강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전형요소 중의 하나이다. 논술고사를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의 힘으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학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논술

고사는 대학입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대학교에서 주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선발방식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비록 그 비중과 시행 대학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최저학력 기준을 갖춘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변별할 수 있는 전형요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논술고사에서는 수험생이 보여주는 제시문과 논제의 정확한 분석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측정이 가능하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논술고사는 어찌 보면 교과성적이나 서류전형에서 찾을 수 없는 수험생의 정성적인 또 다른 면의 평가를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중요한 전형요소로 여겨진다.

이러한 성격과 특징을 가진 논술고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대학 자체의 선발 목적에 맞추어 출제 수준과 방향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였고,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무난하게 잘 시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출제된 문항을 보았을 때, 절제된 제시문과 논제의 표현이 적합하고 적절하며 훌륭하다는 느낌을 자주 갖는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 및 내용의 제시문과 논제를 기대하고 응시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때가 있다.

제시문과 논제에서 사용하는 용어, 어휘,

구의 사용범위와 수준은 출제자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부나 교육평가원 또는 시도교육지원청의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다. 수능출제 시에는 이 점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논술고사 출제는 대학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 어휘, 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시문의 성격이나 논제의 특성상 하는 수없이 써야 하는 용어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논술고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무얼 묻는지 무엇에 대하여 답해야 할지 몰라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검정교과서는 그 과목에 따라 여러 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수학책의 경우 주로 수학 10여 종, 수학I, 수학II, 미적분과 통계기본 등이 각각 10여군데의 다른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가 있으며 각 고등학교에서는 그들 중 각각 어느 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교과서에서만 다루는 소재보다는 상당수의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소재를 참고하여 제시문 등의 작성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교과서 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문 또는 논제를 제시할 때에도 가능하면 검인정 교과서에서 다루는 용어 등으로 바꾸어 주거나 인용한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리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고등학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 등이 섞여 있는 제시문이나 논제를 접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실력에 관계없이 논

술준비는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하겠지만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은 것이 논술준비를 위하여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선입견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성화된 대학 학과나 학부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에서 그에 알맞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과부에서 제시한 3분정책등을 지켜가면서도 고등학교에서 보내온 자료나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각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성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선발 기준을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학금제시 기준, 특색있는 학과, 취업상황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참조하여 각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에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교육기관을 통한 소모적인 상담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류전형에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과부나 교육청 홈페이지, 필요한 경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뒤져서라도 학교의 규모 및 학급수, 교직원수, 학생수, 교육과정 운영방향 등을 파악하는 노력

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시설규모가 크고 학급수가 많으면 교직원수도 많아서 소규모학교에서보다 더 활발한 동아리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소규모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특징있는 동아리 활동을 전개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치되는 현 상황에서 학교의 시설 및 규모에 따라 본의 아니게 활발한 학생활동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다양화 정책 하에서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중·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농어촌자율학교, 개방형자율고등학교와 같은 자율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일반계고, 전문고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과 운영방침이 서로 다른 학교 출신의 수험생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불이익을 받았는지 하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처럼 공정한 전형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고등학교의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도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고교1학년 부터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과목별 중점이수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에듀팟을 이용한 창의적체험활동을 학생 스스로 기록하여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의 변화를 항상 주시하고 예측하면서 취지에 알맞은 전형기준 개발에 미리미리 힘을 쏟아 부었으면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 진학상담교사를 통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대학입시에 관련된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미리미리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현재의 전형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자칫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전형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면 입시관련 사교육이 더 기승을 떨칠 것이다. 앞으로 학령인구를 생각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양함 속에서의 단순화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필자소개

서정인 | 서울고등학교 수학교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 단국대 대학원 수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상담교사단 중앙상담교사, 대입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연구 고교-대학 전문가협의회,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고

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 7차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공저, 8차 고등학교 수학교과서 공저, 논술길라잡이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입시 관련 논술연구 및 전형계획, 입학사정관제,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이다.